

기 자 의 추 억 , 의 사 의 꿈



1998년 동아일보 기자로 현대그룹 대북경협사업 기자회견 취재 당시 모습.

기자 생활 18년, 아산의 기억

‘5백 마리의 소떼와 함께 판문점을 경유해 북한 방문길에 오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6일 오후 평양에 도착, 7박8일간의 방북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남북한 민간교류의 새장을 열었다.’ (동아일보 1998년 6월 17일자 1면 머리기사)

의사가 되기 전, 기자 생활 18년 동안 잊을 수 없는 취재를 꼽으라면 단연 아산(峨山) 정주영 명예회장이 직접 소를 끌고 판문점을 넘던 사건이다.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강원도 통천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선친의 소 판 돈 70원을 가지고 가출하여 이제 그 빛을 갚으러 가는 길이였다.

이른 새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택을 출발, 계동 현대그룹 사옥, 임진각을 거쳐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기까지, 모든 현장은 국내외 기자들로 북새통이었다. 경제부 기자였던 나는 현대 사옥에 마련된 대형 화면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감동에 가슴이 끓어올랐다.

‘정주영 신화’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만큼 그를 잘 설명하는 장면이 또 있을까. 판문점을 왜 못 넘어가? 육로로는 아무도 갈 수 없던 그 시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그의 행동력

은 나라와 국민의 삶을 뒤바꿔 놓았다.

그해 말 금강산관광 사업이 시작됐다. 나도 기자단 일원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 2년 후에는 남북 정상에 처음으로 만나는 역사의 진전을 맞았다.

네팔에서 꿈꾼 의사의 길...Why not?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 계열사들을 두루 취재해왔지만,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이 설립한 병원에 몸을 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기자가 아닌, 의사로서는 더더욱.

신문 주말판 편집장을 맡고 있던 2005년 초, 의료봉사단과 함께 떠난 네팔 여행 때였다. 현장의 의사들을 부러워하며 내가 말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의사가 되기엔 너무 늦었겠지?”

“Why not? Try it!”

옆에 있던 남편이 3수까지는 봐주겠다며 등을 때밀었다. 곧바로 의학전문대학원 입시학원에 등록하고, 사표를 내고, 두 번의 입시를 거쳐 의전원에 입학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정치부 기자였던 남편은 그 사이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우든보트(wooden boat) 만드는 일을 취미로 시작했다. 내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자, 자신은 전업 보트빌더(boat builder)가 되겠노라 선언했다.

“보트빌더가 되기까지 내게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5년만 주시오.”

시골의사, 보트빌더를 꿈꾸던 우리는 2015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배를 만들고 띄울 수 있는 동해안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강릉아산병원 검진센터에 취직할 수 있었다. 양양 바닷가 마을에 보트 작업장도 마련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후 취재차 처음 북한 땅을 밟았다.



강원도 양양 수산항에서 남편이 만든 배를 타고.

일본 산골마을의 한국인 의사

배 만들기보다 공상에 빠져 있을 때가 더 많은 남편이 2017년 늦가을 어느 날, 툭 던졌다.

“동해에서 일본 돗토리현 사카미미나토를 오가는 크루즈선이 있소. 여행 한번 가보지 않겠소?”

지도를 검색해보니 항구 가까운 곳에 돗토리대학병원이 있었는데 병원 홈페이지의 인턴 모집 공고가 눈에 확 들어왔다. 몇 년 전 따 둔 일본 의사면허가 떠올랐다. 기자 시절 도쿄특파원을 지내면서 익힌 일본어를 되살려 일본 의사 국가시험을 치렀었다.

일본 벽지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던 터라, 지원서류를 갖춰 이메일을 보냈다. 크루즈 여행길에 아예 면접까지 봤다. 국내 의사경력을 인정받아 2년간의 필수 인턴과정을 8개월 만에 끝냈다. 대학병원 교수의 소개로 인근 산골 마을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게 됐다. 99병상, 상근의사 7명의 작은 병원이지만, 대학병원에서 거의 모든 과 전문의가 요일별로 파견을 왔다. 덕분에 웬만한 중병은 마을 안에서 해결하는, 꽤 성공적인 공공병원이었다.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 이 초고령마을에서는 의료복지가 최대현안이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닥쳐올 미래였다.

매주 방문진료도 다니며 시골의사로서의 재미에 푹 빠져 지낼 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일간의 하늘길이 막히기 시작했다. 나리타-인천 항공편만 남았을 때 결국은 일본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강릉아산병원 입원전담 전문의

다시 또 강릉아산병원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63병동 입원전담 전문의다. 아직 생소한 제도이고 맡음하기도 어려워, 나는 그냥 ‘병동주치의’라고 설명한다. 병동에 상주하며 환자들을 수시로 살피고 필요한 처방이나 처치를 바로바로 수행하는 것이 주 업무다. 병의 상태,

검사 결과와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 등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중요한 치료방침은 외래주치의인 해당과 교수들과 긴밀히 논의한다.

그동안 입원환자들은 하루 한, 두 번의 회진 시간 말고는 의사 만나기가 힘들었다. 교수들은 외래진료에 각종 시술, 수술, 연구 등으로 숨 돌릴 틈이 없고, 전공의들 역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이런 배경으로 대형병원들은 입원전담의 제도를 적극 시행 중이다. 입원전담의를 둔 병동의 치료성적이 좋다는 연구결과들도 나오고 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만난 서울아산병원 85병동의 김준환 교수 이야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의 책 ‘대한민국 입원전담 전문의’를 단숨에 읽었다.

강릉아산병원도 입원전담의 병동들을 운영 중이었고, 운 좋게도 혈액종양내과 병동에 자리가 있었다.



강릉아산병원 63병동에서 환자를 보살피고 있는 이영이 입원전담의.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환자들은 병 그 자체보다,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미지의 두려움으로 힘들어 할 때가 많다. 그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 1분이라도 먼저 달려가 고통을 덜어주는 의사.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의사.

그런 의사가 늘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환자들은 완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다시 힘내서 치료받으세요. 다음에도 꼭 63병동에 입원시켜 주세요.”

지금 여기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

글 강릉아산병원 이영이 입원전담의